

죄인에게 있어 죄에 대한 처벌과 두려움, 심판으로부터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이 피의 보복자로부터 쫓기는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 분배를 마쳐갑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섬길 레위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여호수아 20, 21장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시간과 삶을 바쳐 하나님을 섬길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48개의 특별한 성읍을 지정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 여섯 개가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자들의 피난처로 이스라엘의 성읍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도피성이 되신 것입니다. 도피성의 말씀은 단지 가나안 정복 세대인 이스라엘의 죄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피성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은혜가 더 분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주일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은혜는 연약한 죄인 모두를 위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9절에는 도피성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는 장소라고 알려 줍니다. ‘부지중에’라는 것은 실수로, 모르고, 혹은 ‘어쩔 수 없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면 안되지만,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에는 꼭 계획적이고 우발적이지 않더라도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어쩔 수없이 죄를 범하는 인간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죄인들이라고 분명히 알려 줍니다.(롬 3:23, 롬 3:10~12) 이런 죄인들이 피할 곳, 살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그 자체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은혜는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 7절에는 세 곳을 지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입니다. 누구나 하룻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약속의 땅에 살게 될 유대인들만을 위한 규례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살게된 타국인을 포함한 모든 거류민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총이었습니다.(수 20:9, 민 35:15)

예수님의 은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 있고, 누구든지 믿으면 용서를 받고,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은혜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은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할까요? 여호수아 20장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내일을 꿈꾸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죄인들을 대속하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 죄의 값이 치루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는 대속이 축복이 도피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냥 평범한 죽음이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내가 받아야할 형벌, 죽음,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저주와 심판, 죽음에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2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5/22(월)	5/23(화)	5/24(수)	5/25(목)	5/26(금)	5/27(토)	5/28(주일)
대하5-6	대하7-9	대하10-13	대하14-17	대하18-20	대하21-24	대하25-27

QT

이번 주 QT 말씀

5/22(월)	5/23(화)	5/24(수)	5/25(목)	5/26(금)	5/27(토)	5/28(주일)
삼하20:14-26	삼하21:1-14	삼하21:15-22	삼하22:1-16	삼하22:17-28	삼하22:29-51	삼하23:1-12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죄용서, 구원,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나누어 주세요.
3.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은 목원들과 함께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